

LG디스플레이, 애플에 LCD패널 공급

2008년 MP3 iPod 적용 3.5인치 ... 해외 휴대전화메이저 1곳에도 납품

LG디스플레이가 2008년 미국 Apple에 MP3 플레이어 <아이팟>에 사용되는 LCD 패널 공급을 개시한다.

LG디스플레이 권영수 사장은 7월9일 오후 기업설명회 직후 “Apple의 MP3 플레이어인 아이팟에 적용될 3.5인치 LCD 패널을 2008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영수 사장은 2008년 하반기에 Nokia, Motorola, Sony Ericson 등 해외 메이저 휴대전화 생산기업 3곳 중 1사에 휴대전화용 LCD를 납품한다고 전했다.

LG디스플레이가 Apple과 해외 3대 휴대전화 생산기업에 LCD 패널을 공급하게 된 것은 처음이다.

권영수 사장은 주가에 걸림돌이 돼온 Philips 보유지분(13.2%) 매각 문제와 관련해 “Philips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근 Philips의 고위 관계자를 만나 Philips가 LG디스플레이의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전략적 투자자로 남아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차세대 LCD 라인 투자와 관련해 “앞으로 8세대 추가 투자를 할 지, 또는 10세대, 11세대 투자를 할 지 확정하진 못했지만, 어떤 투자가 진행되더라도 늦어도 2011년부터는 제품 양산 체제가 가동돼야 하기 때문에 2009년 상반기에는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LG디스플레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는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 OLED) 생산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조만간 구미공장에 1000억원을 투자해 OLED 라인 증설에 나선다.

그리고 “최근 미국 Dell로부터 노트북 PC용 LCD패널의 장기 공급을 요청받았다”며 “구미에 6세대 LCD 라인을 증설키로 한 것도 Dell을 비롯한 노트북 생산기업들에게 안정적으로 패널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TV 수요 부진에 따라 LCD 패널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 감산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7/10>